"기량 보여준 모든 선수가 승자"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4일간의 일정 모두 마쳐… 다음대회는 제주도서

지난 24일부터 시작한 제36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4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2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폐막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폐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국 최대의 기능 장애인의 축제인 '제36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막을 내렸다.

지난 27일 오전 11시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진행된 폐회식에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구형보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손영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장 등 대회 관계자들과 출전 선수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전주 화산체육관, 전북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전라북도 장애인 복지관,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총 42개 직종에 전국 17개 시도 대표 선수 419명이 참가해 오랜 기간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

대회 중에는 장애인들이 독립된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조 공학기기 이동 전시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과 연계한 모형 맞춤짝(키트) 조립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대회 결과 광주광역시 대표로 참가한 조규홍씨가 전자기기 직종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금메달 42명, 은메달 42명, 동메달 3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폐회식에서 임서정 차관은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회에서 자신의 기량을 보여준 모든 선수들이 승자"라며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을 격려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회를 준비해준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고 정부도 열정적인 선수들과 일자리를 소망하는 전국의 장애인 분들이 직업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 수상자에게는 메달과 함께 1,200만원에서 5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입상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직종 기능사 필기 및 실기 시험 면제, 국제 장애인 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등 특전이 주어진다.

제37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2020년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며 내년에는 국제 장애인 기능올림픽대회가 러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올해 입상한 우리나라의 장애인 기능인들이 국제대회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성 기자

도심에서 즐기는 천년 전북의 이야기 속으로

내달 10일부터 전북의 역사 · 문화 대중화 강좌 개최
도민 자존감 회복 위해 전북학 도민강좌 지속 추진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와 전주역사박물관이 오는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전주역사박물관 꽃심관에서 '전라북도 역사와 문화'라는 주제로 도민강좌를 개최한다.

도민강좌는 천년 전북의 역사와 문화적인 가치를 발굴하여 도민들이 도심 속에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강사는 전북학 관련 해당 분야 권위자들을 초빙하여 매회 색다른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도민강좌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여 전라북도의 역사와 문화'를 개괄하고 이를 도민과 공유해 전북인으로서 자세와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다.

첫 강좌는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 관장이 나선다. 이어, 조법종 우석대 교수의 '전북의 역사와 문화', 곽장근 군산대 교수의 '전북 가야의 현황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여정', 윤상원 전북대 교수의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전북', 이정덕 전북대 교수의 '창의성과 창의도시-전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전북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모든 강좌를 이수한 사람에게는 수료증과 소정의 선물도 제공된다.

황철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민강좌는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전북의 위상과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시군 지역학센터와 연계해 도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도민강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한방에!

청년전북 New-WAVE 본격 추진
총 280억원이 넘는 대규모 지원

전북도가 지역 내 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전북 New-WAVE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전북 New-WAVE 지원사업'은 정부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공모 신청해 선정된 국비 22억 5천만원, 도비 16억5000만원 포함 총 47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고려하면 총 280억원이 넘는 대규모 지원사업이다.

전국 최대규모로 선정된 이 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도내 미취업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안정적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인건비의 최소 200만원을 보장 지원하며, 지속 고용 시 3년차 인센티브 1000만원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분야별 구인기업발굴과 구직자 모집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링크사업단, 전주대학교 링크사업단, 국제한식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전주대학교 링크사업단에서는 탄소·신소재 분야, 원광대학교 링크사업단에서는 IT/바이오분야, 국제한식문화재단에서는 농생명/식품분야를 전담하여 특화분야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본격 추진되기 전부터 기업들의 반응이 뜨겁다.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채용을 망설이던 기업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본 사업 추진에 따른 도내 기업의 고용 창출과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전북도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도내 일자리 전문 유관기관이 협업 운영하는 본 사업이 기업 구인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내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청년 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참여기업과 구직 청년은 전북도일자리종합센터(1577-0365)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추계 도로시설물 일제정비 실시

전북도는 14시·군과 함께 오는 10월 18일까지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추계 도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와 장비 점검을 통해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계획됐다.

중점 정비대상은 8116개 노선에 6908㎞(위임국도 259㎞, 지방도 1,895㎞, 시·군도 4754㎞)의 도로시설물이고, 시군 및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청별로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사항으로는 포장 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맨홀단차 등 파손부위 정비, 낙석과 산사태 위험지구 및 산마루 측구 정비, 교량, 터널 등 주요시설물의 기능 확보, 배수관, 측구, 도수로 등에 쌓인 퇴적토 제거 및 세굴부위 정비, 파손된 도로표지, 불법 점용시설물 등을 개선 및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과 결빙, 기습적인 폭설에 대비한 제설 자재 비축 및 장비점검, 훼손된 차선과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해대책에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찾아가는 희망법률상담으로 무주군민 고민해소 나서

전북도가 변호사가 없는 지역주민들의 고민 해소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난 27일 무주군 무주읍 사무소에서 '찾아가는 희망법률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희망법률상담실은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전북도 희망법률 상담관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무료 상담을 해줌으로써 도민들의 법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서비스이다.

전북도는 이날 변호사가 없는 무주군을 찾아 변호사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상담을 신청했다.

이날 법률상담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도청 희망법률상담관(곽영수 변호사)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군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희망법률상담관은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금전거래, 토지소유권 행사 및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고 고충을 받던 중 상담을 통해 알기 쉽고 자세하게 해결 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지역건설 활성화 위한 대형건설사 본사 방문

하도급 · 협력업체 지원협조 요청

전북도가 지난 27일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건설협회와 함께 대형건설사 본사를 방문, 지역업체 하도급 및 협력업체 등록 지원을 협조 요청했다.

전북도가 지역건설업체들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홍보세일즈단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서울 소재의 현대산업개발 및 현대건설 본사를 방문했다.

이번 민관합동 홍보세일즈단 활동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함께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들을 위한 하도급 수주 지원과 지역건설업체 사기 진작을 위해 관급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공사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건설사를 방문해 세일즈 활동에 나섰다.

도는 유관기관 대형 건설사업장 방문(8월)에 이어 지난 3일부터는 시군 대형 건설사업장 방문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홍보세일즈단 활동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홍보세일즈단은 정부의 공공부문 SOC 규모 축소 방침에 따른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대형건설사와 지역업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아 구성하게 되었다.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홍보세일즈단은 대기업 본사 방문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업체 홍보 및 도내 지역업체 수주율·하도급률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북도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로 구성되어 올해부터 운영 중이다.

27일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 본사를 방문하여 직접 추진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등 대형사업에 도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기회 확대, 협력업체 등록 지원 및 지역 인력, 자재, 장비 등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였고, 새만금을 비롯한 도내에서 발주되는 대형사업 입찰시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도 대형건설사와의 연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를 실시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등 지역건설업체의 대형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협회들과 함께 유관기관, 시군 및 대기업 본사 등을 비롯하여 도내 대형사업장 방문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감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세일즈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꿈을 키워주는 회원 모집(무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학장(강정원)

- 국제여가문화협회(봉숭아학당) 전주학장
- 도내 각 평생교육원 강사
-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사무처장
- 한극스피치, 웅변협회 전북 이사
- 도내 각 기관, 단체, 복지관 특강
- 웃음치료사, 노래강사, 스피치지도사, 치매예방지도사, 난타지도사 등

강의분야: 웃음치료, 행복노래, 치매예방, 민요율동, 생활체조, 난타, 강사양성

※ 참고
① 각 분야 자격증 희망자 취득가능 상담 후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② 남녀, 노소 누구나 희망분야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③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하세요.
④ 강사양성으로 제2의 직업의 길이 있습니다.
⑤ 꿈을 키워주는 학습의 길이 있습니다.

국제여가협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201, (3층)
(바울센터 옆 턱시양복점 건물)
(H · P : 010-2078-4810)